

## 중국어의 한정어빈어 연구

박 기 현\*

<目次>

- |                  |                   |
|------------------|-------------------|
| I. 서론            | III. 한정어빈어에 대한 해석 |
| II. 한정어만 남겨놓은 빈어 | 1. 수식구조의 중심어      |
| 1. 명사적인 한정어빈어    | 2. 변화하는 한정어빈어     |
| 2. 동사적인 한정어빈어    | 3. 한정어빈어와 중국어의 특징 |
| 3. 새로운 한정어빈어     | IV. 결론            |

### I. 서론

중국어의 여러 문법관계 중에서 술빈관계는 비교적 복잡하고 다양해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왔고 또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본문에서는 그중에서도 일종의 특수한 빈어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것은 한정어와 중심어로 이루어진 수식구조가 빈어로 쓰일 때 수식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어는 나타나지 않고 그 부속성분인 한정어만 나타나 빈어처럼 쓰이는 경우이다. 이는 현상자체가 흥미롭기도 하지만 중국어의 형태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준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는 연구주제라고 생각된다.

본문에서는 수식구조의 한정어가 빈어처럼 쓰이는 것을 ‘한정어빈어’라 칭하고 우선 관련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중국어의 형태적인 특징과 연결시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 인제대학교 중국학부 조교수

## II. 한정어만 남겨놓은 빈어

### 1. 명사적인 한정어빈어

술빈구조에서 술어로 쓰이는 동사는 품사 중 내부 구성원의 수가 많고 그 성격도 다양해서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다양한 하위분류가 가능하다. 그중 동사가 어떤 종류의 빈어를 취하는가를 기준으로 중국어의 동사는 體賓動詞와 謂賓動詞로 나눌 수 있다. 體賓動詞는 ‘騎(馬)’, ‘買(票)’, ‘捆(東西)’, ‘修理(電燈)’ 등과 같이 체언 성격의 빈어만을 취하는 동사이며 謂賓動詞는 ‘喜歡(說話)’, ‘贊成(馬上出發)’ 등과 같이 용언 성격의 빈어도 취할 수 있는 동사이다(朱德熙, 1982: p58~60). 또 謂賓動詞는 다시 빈어의 종류에 제한이 없는 ‘覺得’, ‘希望’, ‘贊成’ 등 眞謂賓動詞와 일부 이음절 동사나 수식구조만을 빈어로 취하는 ‘進行’, ‘有’, ‘作’ 등 准謂賓動詞)로 나뉜다.

술빈구조의 빈어도 그 종류가 많고 성격이 다양하다. 李臨定(1983)의 <賓語使用情況考察>에서 중국어 빈어는 의미적으로 피동자, 결과, 도구, 대상, 목적, 장소, 행위자 등을 나타내며, 구조적으로는 동사가 빈어와 꼭 붙어 나와야 하는 경우, 빈어가 동사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경우, 습관적인 조합, 형식적인 빈어, 한정어만을 남겨 놓은 빈어 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중 ‘한정어만을 남겨 놓은 빈어(只保留定語的賓語)’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리킨다.

(1) 這屯沒有，去斗外屯唄。

(이 동네에는 없으니 가서 바깥 동네와 싸움시다)

1) 准謂賓動詞의 빈어로 쓰이는 용언성분의 종류가 적기도 하지만 그 빈어가 다소간 체언성격을 띠는 점에서도 眞謂賓動詞와 구분된다.

- (2) 你不但忘了從前, 也忘了現在!  
 (너는 이전을 잊었을 뿐 아니라 현재도 잊었구나)
- (3) 收拾屋的時候, 聽着點孩子, 醒了抱抱他。  
 (집을 정리할 때 아이를 좀 듣고 있다가 깨면 좀 안아줘라)
- (4) 他又想蹲下, 學刺猬, 縮成一個球。  
 (그는 또 쪼그리고 싶어 고슴도치를 배워 공처럼 움추려 들었다)

위의 예들에서 밑줄 친 부분은 동사의 빈어 위치에 나타나 있으나 의미적으로 보면 술어동사와 빈어간의 의미적인 결합이 그리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부자연스러움을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한정어만을 남겨 놓은 빈어’란 개념이다. 즉, 위 예들에서 빈어인 밑줄 친 부분은 원래 수식구조였으나 중심어가 나타나지 않고 한정어만 남겨 놓게 되어 결과적으로 한정어가 빈어처럼 쓰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래 문장은 아래와 같다.

- (1') 這屯沒有, 去外屯的地主唄。  
 (이 동네에는 없으니 가서 바깥 동네 지주와 싸우시다)
- (2') 你不但忘了從前的事情, 也忘了現在的事情!  
 (너는 이전의 일을 잊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일도 잊었구나)
- (3') 收拾屋的時候, 聽着點孩子的動靜, 醒了抱抱他。  
 (집을 정리할 때 아이의 움직임을 좀 듣고 있다가 깨면 좀 안아줘라)
- (4') 他又想蹲下, 學刺猬的動作, 縮成一個球。  
 (그는 또 쪼그리고 싶어 고슴도치의 동작을 배워 공처럼 움추려 들었다)

원래 (1'), (2'), (3'), (4')에서 밑줄 친 수식구조가 빈어로 쓰고 있었는데 중심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한정어만 남아 빈어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1), (2), (3), (4)에서 술어동사와 빈어간의 의미적인 부자연스러움이 해결된다. ‘聽着點孩子(아이를 좀 듣고 있다)’의 원래 형태를 ‘聽着點孩子的動靜(아이의 움직임을 좀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술어동사와 빈어간의 좀 더 자연스런 의미연결이 가능한 것이다.

李臨定の ‘한정어만을 남겨 놓은 빈어’가 명사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빈

어 자체로 쓰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sup>2)</sup> 술어동사와 빈어간의 의미연결이 부자연스러운 일부 술빈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일종의 환유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환유란 인접성에 근거해 근접한 어떤 사물로 다른 사물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한정어와 중심어 간의 문법구조상의, 의미연결상의 인접성에 근거해 한정어가 중심어를 대신한다. 한정어란 중심어의 성질이나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중심어의 성질이나 소속을 나타내는 사물로 그런 성질을 가지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물을 대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일부 학자는 비명사적인 빈어의 특수한 유형을 설명하는데 한정어빈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 2. 동사적인 한정어빈어

중국어에서 주어와 빈어 위치의 동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줄곧 논쟁거리였다. 대개는 주어와 빈어 자리에 비명사적인 성분이 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되도록 한정하려 했다. 이런 각도에서 처음에는 의미적인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술빈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한정어만을 남겨 놓은 빈어’라는 개념은 徐緯地(1986)와 蔡文蘭(1986)에 의해 일부 비명사적인 빈어를 설명하는데 쓰인다.

蔡文蘭(1986)은 <帶非名詞性賓語的動詞>에서 비명사적인 빈어를 취하는 동사들의 특징에 관해 논하면서 ‘學’나 ‘同意’와 같은 동사의 경우 그 빈어가 수식구조로도 술빈구조로도 확장이 가능하나 ‘產生’이나 ‘擴大’ 등의 경우 비명사적인 빈어는 수식구조로만 확장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2) 앞의 빈어의 성격에 따른 동사의 분류에서 보았듯이 중국어에서는 용언성분도 빈어로 쓰일 수 있기는 하지만 역시 체언성분이 빈어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眞謂賓動詞를 제외하면 다른 동사의 빈어는 대개 명사적인 성격을 띤다.

- (5) 產生變化(변화가 나타난다)  
→ 產生化學變化(화학변화가 나타난다)
- (6) 擴大影響(영향을 확대하다)  
→ 擴大勢力影響(세력영향을 확대하다)

그런데 이런 술빈구조 뒤에는 명사적인 성격의 중심어를 채워 넣을 수 있다. 예를 들면,

- (5') 產生化學變化(화학변화가 나타난다)  
→ 產生化學變化的現象(화학변화의 현상이 나타난다)
- (6') 擴大勢力影響(세력영향을 확대하다)  
→ 擴大勢力影響的範圍(세력영향의 범위를 확대하다)

그는 이렇게 명사성격의 중심어를 생략하고 한정어로 하여금 직접 빈어로 쓰이게 하는 현상은 실제 많이 사용된다고 말한다.

‘變化’나 ‘影響’과 같은 빈어는 본래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사<sup>3)</sup>로 명사가 나타나는 문법적인 위치에 자주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굳이 뒤에 명사적인 성격의 중심어가 숨어 있다는 설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전형적인 동사구조가 빈어로 쓰이고 있어 중심어가 숨어 있다는 설명이 좀 더 유용한 경우도 있다.

徐緯地(1986)는 <動詞短語作賓語及有關的句法現象>에서 일부 동사의 동사구로 이루어진 빈어는 하나의 추상명사로 개괄할 수 있고 또 이로써 비명사적인 빈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힌다. 예를 들면,

- (7) 比賽爬樹(나무 오르기를 시합하다)  
→ 比賽某種本領(어떤 능력을 시합하다)

3) 朱德熙(1982)는 구체적으로 명사의 수식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런 동사의 명사적인 성격으로 들고 있다.

- (8) 參加栽樹(나무 자르기에 참가하다)  
→ 參加一項活動(한 가지 활동에 참가하다)

이런 예문에서 상응하는 추상명사는 대부분 비명사적인 빈어 뒤에 놓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원래의 빈어는 수식어가 된다. 예를 들면,

- (7') 比賽爬樹的本領(나무 오르는 능력을 시험하다)  
(8') 參加栽樹的活動(나무 심기 활동에 참가하다)

그래서 그는 이런 동사의 동사구빈어 뒤에는 추상명사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比賽爬樹’나 ‘參加栽樹’에서 ‘爬樹’와 ‘栽樹’는 빈어의 진부가 아니고 일종의 ‘只保留定語的賓語’로 뒤에는 추상명사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중국어의 일부 동사에서 이런 동사들처럼 추상명사 중심어를 떼어내 버리고 동사성분의 수식어만 남겨놓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식구조의 중심어가 나타나지 않아 한정어만 남아 빈어로 쓰인다는 점은 같지만 한정어가 명사적인 경우와 다르게 한정어가 비명사적인 성분이라면 환유만으로는 설명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전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한정어빈어가 관찰된다.

### 3. 새로운 한정어빈어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이전의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한정어빈어의 몇 가지 예 외에도 약간 다른 형태들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동사나 동사구뿐 아니라 형용사도 이런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 예를 들면,

- (9) 經過多年強化訓練之后, 在認知和語義方面達到了正當。  
(몇 년의 강화훈련 후 인지와 의미 면에서 정상에 도달했다)

- (10) 總體上來看, 部分代整體畢竟是一種特殊, 因此體詞成分謂詞化要少得多。  
 (전체적으로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것은 결국 일종의 특수이므로  
 체언성분의 용언화는 훨씬 적다)

중국어에서 ‘正常’이나 ‘特殊’는 주로 한징어나 서술어로만 쓰이고 정도 부사의 수식도 받으므로 형용사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達到’와 ‘是’의 빈어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술빈구조는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그리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조합이다. 여기에 ‘한징어만을 남겨 놓은 빈어’라는 개념을 이용해 빈어는 원래 수식구조였으나 중심어가 나타나지 않아 한징어만 남아 빈어처럼 쓰인다고 생각하면 ‘達到正常水平’이나 ‘是特殊情況’처럼 익숙한 술빈조합이 된다. 특히 예(10)의 경우 ‘特殊’앞에 ‘一種’이라는 수량사까지 붙어 있어 ‘情況’과 같은 명사중심어를 넣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게 생각된다.

또 다음과 같은 예문도 찾아 볼 수 있다.

- (11) 這從前一章的分析中就可以看到一個大概。  
 (이는 앞장의 분석을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예문에서 빈어 위치에 있는 ‘大概’는 일반적으로 부사어로 쓰이거나 명사를 수식하는 한징어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는데 여기서는 빈어 자리에 나타났으며 역시 수량사까지 대동하고 있어 ‘大概’ 뒤에 ‘的內容’ 등이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외에도 徐緯地의 연구가 술빈구조로 이루어진 한징어빈어를 예로 한 것이었다면 다른 형태의 동사적인 한징어빈어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 (12) 大多數情況下按這些標準作出的判斷是一致的, 即使有不一致, 把這些標準綜合起來考慮, 判定有標記項和無標記項一般不會有多大的困難。

(대다수 상황 하에서 이런 기준에 따른 판단은 일치하며 불일치가 있더라도 이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표향과 무표향을 판단하면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

이 예문은 조금 길고 문장 내에는 두개의 ‘有’가 있다. 즉 ‘即使有不一致’와 ‘不會有多大的困難’이 그것이다. 뒤의 ‘有’의 빈어 ‘困難’은 朱德熙가 말한 소위 名形詞<sup>4)</sup>이지만 앞의 ‘有’의 빈어 ‘不一致’는 다른 연구에서는 언급된 바 없는 것으로 기존의 해석을 찾기 힘들다. ‘不一致’는 형용사에 부정부사가 붙은 형태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단어도 아니고 명동사나 명형사처럼 동사나 형용사와 명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 성분은 술어동사 ‘有’가 없어도 문장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12') 大多數情況下按這些標準作出的判斷是一致的, 即使不一致, ……。

(대다수 상황 하에서 이런 기준에 따른 판단은 일치하며 불일치하더라도...)

여기서 ‘有’가 있든 없든 문장의 의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으며 두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 차이가 없다. ‘有’의 빈어로 쓰이고 있는 ‘不一致’는 원래 ‘有不一致的地方’과 같이 ‘有’와 ‘地方’이 술빈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不一致’가 ‘地方’의 한정어로 쓰이던데서 ‘地方’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不一致’가 빈어처럼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朱德熙(1982: 75, 76)는 명사와 동사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일부 동사를 명동사로 불렀듯 명사와 형용사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형용사를 名形詞로 불렀다.

### Ⅲ. 한징어빈어에 대한 해석

#### 1. 수식구조의 중심어

의미적, 문법적으로 그리 자연스럽지 못한 술빈조합을 수식구조로 이루어진 빈어의 중심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한징어만 남아 빈어처럼 쓰인다고 설명하는 것은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한징어빈어는 단지 편의상의 명칭일 뿐 특정 언어현상에 대한 정확하고 엄밀한 정의라고 보기는 힘들며 또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특수한 언어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한징어빈어 관련 현상을 다루고 있는 몇 편의 논문에서 원래의 수식구조 중심어에 관해 李臨定(1983)은 ‘這種賓語是中心語不說出, 只保留定語(이런 빈어는 중심어를 말하지 않아 한징어만을 남겨놓는다)’라고 단순히 ‘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반면 蔡文蘭(1986)은 ‘省略名詞中心語, 而讓它的定語直接做賓語(명사중심어를 생략하고 그 한징어로 하여금 직접 빈어가 되도록 한다)’라고 이런 현상을 일종의 ‘생략’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徐緯地(1986)는 ‘動詞賓語后邊隱含着一個抽象名詞(동사빈어 뒤에 하나의 추상명사가 숨어있다)’라고 ‘隱含’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같은 현상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수식구조의 중심어의 성격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해 範開泰(1990)는 ‘口里不說, 意思里有(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의미에는 있는)’현상을 광의의 생략이라고 하고 이를 다시 省略, 隱含과 暗示로 세분했다. 省略이란 문법적인 생략을 가리키고 隱含은 의미적인 생략을 가리키며 暗示는 화용상의 생략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省略이란 문법구조적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성분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며 생략 전의 형태로 복원이 가능하고 생략된 형태에 상응하는 생략되지 않은 완전한 형태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13) 我在寫作中不斷探索，在探索中逐漸認識自己。

(나는 저술과정에서 무단히 탐색하고 탐색과정에서 자신을 점차 인식한다)

여기서는 앞 절의 주어(我)를 받아 두 번째 절의 주어가 생략되었으며 두 번째 절 앞에 ‘我’라는 주어를 복원시킬 수 있다. 주어가 복원된 형태는 바로 생략형태에 상응하는 완전한 형태이다.

반면 隱含은 문법형태의 축약으로 구성된 것으로 省略과는 다르게 상응하는 非隱含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隱含된 것은 문법성분이 아니라 의미성분이다. 예를 들면,

(14) 院長報名獻血。(원장이 헌혈을 신청했다)

(15) 這個人很聰明，一教就會。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해서 한번 가르쳐주면 곧 할줄 안다)

(14)과 (15)의 의미구조는 각각 다음과 같은데 이 의미구조에서 (14)과 (15)가 축약되어 나온 것이다.

(14') 院長報名院長獻血(원장이 신청하고 원장이 헌혈하다)

(15') 這個人很聰明，別人一教他就會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해서 다른 사람이 한번 가르치면 그는 곧 할 줄 안다)

暗示는 일종의 화용현상으로 일부 暗示는 문법구조와는 무관하게 발화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미가 결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16) 不一定去。(꼭 가지는 않는다)

(16)은 논리적으로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요청

에 대한 완곡한 거절일 수도 있다. 隱晦의미는 확정된 의미이고 暗示의미는 가능성에 관한 의미이다. 暗示의미는 대부분 청자의 심리나 화자의 청자에 대한 예측, 청화자간의 특별한 관계, 발화시의 사회적 배경 등을 통해 해석을 찾을 수 있다.

範開泰(1990)의 연구에 따르면 한징어빈어는 일종의 隱晦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빈어 뒤에 또 다른 성분의 존재를 가정할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한징어빈어가 빈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다른 문법성분의 존재를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한징어빈어는 문법적인 省略에서 시작되어 이런 省略이 익숙해지고 굳어지면서 隱晦이나 暗示까지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변화과정은 다음 예문에 잘 나타난다.

(17) 語言在不同的歷史層次和領域上語法系統會有差異，詞的語法功能也會有不同，劃類標準也應不同。這種不同也以另一種方式表現在8和9上。

(언어는 다양한 역사층위와 영역에서 문법체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단어의 문법적인 기능도 다를 수 있으므로 품사분류기준도 마땅히 달라야 한다. 이런 다름은 또 다른 방식으로 8과 9에 나타나 있다)

이 예문에서는 모두 세 개의 ‘不同’이 쓰였는데 ‘同’이 현대중국어에서 단독으로 서술어로 잘 쓰이지 않기는 하지만 원래 구조는 ‘부정부사+동사’로 (12)의 ‘不一致’와 비슷하다. 하지만 한 문장에 나타난 세 개의 ‘不同’은 각기 다른 문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不同’이 가장 전형적인 서술어로서의 용법으로 보이며, 첫 번째 ‘不同’은 ‘有’의 빈어로 쓰이고 있고, 세 번째 ‘不同’은 수량사의 수식을 받고 전형적인 명사처럼 주어 자리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 ‘不同’뒤에 원래는 (12)처럼 원래 ‘地方’이나 ‘之處’와 같은 말이 숨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런 ‘不同’은 역시 일종의 한징어빈어로 생각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不同’의 구조를 볼 때 능원동사와 함께 서술어로 쓰인 두

번째 용법이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有’의 빈어로 쓰이고 있는 첫 번째 용법은 다소간 명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수량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세 번째 용법은 좀 더 완전한 명사처럼 보인다.

우리는 ‘不同’의 서로 다른 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不同’은 본래 서술성분으로서 주로 쓰였으며 다른 서술성분처럼 ‘的’자 구조를 이루어 명사를 수식하기도 했다. 둘째, ‘有不同的地方’ 등에서 ‘동사+(한정어+중심어)’형태로 쓰이다가 ‘不同的地方’이라는 수식구조가 익숙해지고 굳어지면서 위 문장이나 아래 문장에 같은 수식구조가 나타나는 등의 특정한 문맥에서 중심어 명사가 나타나지 않는 형태가 쓰이게 된다. 셋째, 이런 쓰임이 많아지면서 ‘有’와 ‘不同’과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되고 여기서 얻어진 ‘不同’의 명사적인 성격은 결국 수량사의 수식을 받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 2. 변화하는 한정어빈어

한정어만을 남겨 놓은 빈어는 현대중국어에만 나타나는 문법현상이 아니다. 劉永耕(1985)은 <古漢語中定語代替定中詞組的現象>에서 고대중국어에도 명사가 중심이 되는 수식구가 한정어로 대체되는 상황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때 만약 한정어로 대체된 수식구가 빈어자리에 있다면 이는 결국 李臨定(1983)이 말한 ‘한정어만을 남겨 놓은 빈어’와 같은 현상을 가리키게 된다.

그에 따르면 한정어가 수식구를 대체하는 현상은 일반적인 중심어 생략 현상과는 다르다. 출현 조건으로 볼 때 첫째, 중심어는 앞뒤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독자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중심어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으나 복원할 수는 없다. 둘째, 한정어는 꾸며주며 소속을 나타내지 않는다. 의미적으로 볼 때 한정어가 수식구조를 대체하면 언어를 간결하고 경제적으로 만들어 줄뿐 아니라 한정어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고 사물의 특성을 드러내준다.

사람들이 그 특징으로 그런 특징을 가진 사물을 대신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 본래 수식구의 수식어와 중심어는 임시적인 조합이지만 일단 한정어가 수식구를 대신하게 되면 의미적인 전체성이나 구조적인 응고성이 원래 수식구보다 훨씬 강해진다. 새롭게 나타난 한정어는 어휘의미에서든 문법기능에서든 원래 수식구의 더 집중적인 대표가 되면서 특징으로 사물 자체를 대신하는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원래 수식구에서 중심어가 구조의 핵심이고 중심어가 없으면 수식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지만 중심어가 숨어 나타나지 않게 되면 한정어의 의미가 두드러져 사물의 특성이 의미의 핵심이 되며 따라서 다양한 감정의 전달이 용이해진다.

이렇듯 劉永耕(1985)의 연구는 고대중국어에 관한 것으로 한정어빈어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정어빈어 문제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정어가 수식구 전체를 대신함으로써 첫째, 다른 생략 현상과 마찬가지로 간결하고 경제적인 언어표현을 가능케 하고 둘째, 어떤 특징으로 그런 특징을 가진 사물을 대신하는 것은 이해가 쉽고 셋째, 한정어가 수식구 전체를 대신해 문장에 출현하기 때문에 한정어 자체가 아닌 중심어의 품사적인 성격에 따라 그 기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실 비명사적인 빈어에 대한 상술한 설명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일부 비명사적인 빈어는 확실히 ‘只保留定語的賓語’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12)와 (17)처럼 ‘有’뒤에 비명사적인 빈어가 오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또 이런 비명사적인 빈어뒤에 적절한 명사를 붙여 일반적이지 않은 빈어를 일반적인 명사빈어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중국인이 이런 용법에 대해 약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한 중국인 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말에 이런 재미있는 현상이 있음을 상기시키자 곧 자신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덧붙여 사실 이런 문장 끝에는 중심어 명사가 있다고 했다. 그 말은 다음과 같다.

- (18) 目前語言學有很多流派, 各位學者有不同的所踪, 難免有很多格格不入。  
 (현재 언어학계에는 많은 유파가 있고 각 학자는 서로 다른 쪽을 따르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서로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중국인 학자의 말은 ‘有很多格格不入’ 뒤에 ‘情況’이나 ‘地方’등과 같은 중심어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것일 듯 하다. 그렇다면 술어동사 ‘有’의 빈어는 ‘有很多格格不入’이 아니라 ‘有很多格格不入的情況(地方)’의 ‘情況’이나 ‘地方’등의 명사가 된다.

이는 실제 발화를 기록한 것이므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상술한 다른 많은 상황들을 고려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원래 ‘有’의 빈어는 명사적인 성분 뿐 아니라 비명사적인 성분일 수도 있는데 중국사람들은 ‘有’의 이런 용법에 대해 약간의 경계심이 있다. 즉 ‘有’뒤의 빈어는 반드시 명사적인 것이어야 하고 비명사적인 빈어라 하더라도 특정한 범위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명사와 동사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명동사’나 명사와 형용사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명형사’처럼. 하지만 ‘有’가 비명사적인 빈어와 함께 쓰이는 용례는 구어에 나타날 뿐 아니라 서면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므로 상술한 용법은 이미 상당히 자리를 잡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법이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묘사되고 설명되어지는 것이고 실제 발화된 말이 없다면 문법이란 것은 논할 수도 없는 것이다. 徐緯地이나 蔡文蘭에서 지적하듯이 명사중심어를 생략하고 동사한정어만 남겨놓아 빈어로 쓰이게 하는 용법이 이미 상당히 보편적으로 쓰여 말로 할 뿐 아니라 글로 적기도 하니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아 현대중국어문법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只保留定語的賓語’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미 빈어가 되었다. 단지 그 유래를 따져보면 수식구의 한정어에서 시작되었겠지만 그 한정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빈어로 쓰이고 있고 그 이전의 빈어라는 것은 이미 듣거나 볼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는 袁毓林(1996)이 말했듯이 “그들이

구조의 근원을 따져보면 파생된 것이지만 중국어의 구조 자체로 보면 기본적인 것이다<sup>5)</sup>”라고 할 수 있다.

### 3. 한징어빈어와 중국어의 특징

한징어빈어의 한징어는 본래 ‘동사+(한징어+중심어)’형태로 쓰이다가 특정 한징어와 중심어의 조합이 익숙해지고 굳어지면서 우선 윗 문장이나 아래 문장에 같은 수식구조가 나타나는 등의 특정한 문맥에서 중심어 명사가 나타나지 않는 형태가 쓰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쓰임이 많아지면서 술어동사와 한징어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되고 여기서 얻어진 한징어의 명사적인 성격은 결국 수량사의 수식을 받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중심어 명사의 의미적인 특징이다. 나타나지 않은 중심어는 대개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수식구의 핵심이지만 의미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부분은 그 수식어인 한징어이기 때문이다. 혹은 한징어가 가지고 있는 명사의 어떤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징어빈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 이런 중심어 명사의 의미적인 특징도 한징어빈어를 만들어내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식구조에서 홀로 남겨져 빈어로 쓰이는 한징어가 명사적인 성격이라면 한징어빈어 문제는 단지 의미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술빈관계를 설명하는데 쓰일 뿐이다. 하지만 한징어가 명사적인 성격이 아니라면 술빈조합의 문법적인 합법성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중국어의 특징 중 하나인 빈번한 품사전환문제와도 관련된다.

하나의 단어가 원래 품사에서 다른 품사의 기능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단어가 쓰이는 문법적인 위치, 즉 기능

5) 它們在結構來源上是派生的，但對漢語的結構面貌來說則是基本的。

이다. 한정어빈어에서는 비명사적인 한정어가 특정한 문맥에서 중심어로부터 떨어져 쓰이다가 이런 쓰임이 많아지면서 목적어로 자리잡게 되게 여겨서 명사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한정어빈어뿐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또 중국어의 형태적인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국어나 서구언어와 비교했을 때 중국어가 이들 언어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형태변화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어의 많은 문법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어에서는 언어형태적인 제약이 적기 때문에 어떤 생각 혹은 인식이 직접 문법구조에 반영되기 쉽다고 말할 수 있다.

#### IV. 결 론

술빈관계는 중국어에서 종류가 다양하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그중 특히 주목을 끄는 ‘술어동사+수식구조’에서 수식구조의 중심어는 나타나지 않고 한정어만 남아 목적어처럼 쓰이는 한정어빈어이다. 원래 한정어목적어란 의미적인 연결이 자연스럽게 않은 술빈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일부 비명사적인 빈어를 설명하는데도 유용하다. 하지만 본문의 관찰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한 한정어빈어 외에도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한정어빈어가 존재한다.

이런 구조에서 나타나지 않은 중심어는 원래는 문법적인 省略이었다가 이 省略이 익숙해지고 굳어지면서 의미적인 隱含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식구조 전체가 빈어로 쓰이다가 특정한 문맥에서 수식구조의 중심어가 나타나지 않고 한정어만 빈어로 쓰이다가 이런 용법이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과정은 ‘不同’의 여러 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중심어 명사가 대개 구체적인 뜻을 나타내지 않는 추상명사라는 것

과 중심어의 성질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정어빈어는 그 자체로도 흥미있는 문법현상이지만 중국어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중국어에는 문법적인 제약이 적기 때문에 어떤 조합이 청화자에게 익숙해진다든지 굳어진다든지 하는 인식이 직접적으로 문법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어에 한정어빈어라고 불리우는 현상이 있음과 이런 현상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런 과정 자체가 중국어의 형태적인 특징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정어빈어가 아직은 확고하게 자리잡은 개념이 아니고 또 중국어의 특징도 매우 복잡한 문제이므로 한정어빈어의 성격이나 중국어의 특징과의 연결에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 參考文獻 >

- 蔡文蘭, <帶非名詞性賓語的動詞>, 《中國語文》4, 1986.  
 範開泰, <省略, 引含, 暗示>, 《語言教學與研究》2, 1990.  
 李臨定, <賓語使用情況考察>, 《語文研究》2, 1983.  
 劉永耕, <古漢語中定語代替定中詞組的現象>, 《蘭州大學學報》4, 1985.  
 劉月華等,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2001.  
 譚景春, <名形詞類轉變的語義基礎及相關問題>, 《中國語文》5, 1998.  
 田 然, <現代漢語敘事語篇中NP的省略>, 《漢語學習》6, 2003.  
 徐緯地, <動詞短語作賓語及有關的句法問題>, 《語文研究》2, 1986.  
 楊成凱, <廣義謂詞性賓語的類型研究>, 《中國語文》1, 1992.  
 袁毓林, <語法化及相關過程>, 《中國語文》4, 1996.

- 袁毓林, <漢語句子的文意不足和結構省略>, 《漢語學習》3, 2002.
- 張伯江, <詞類活用的功能解釋>, 《中國語文》5, 1994.
- 張桂賓, <省略句研究述評>, 《漢語學習》1, 1998.
- 朱德熙, 《語法講義》(商務印書館), 1982.
- 朱德熙, <現代書面漢語的虛化動詞和名動詞>,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5, 1985.
- 강연임, <담화에서의 생략조건과 대상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43집, 1999.
- 박기현·최봉량, <중국어명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국어문학》45집, 2005.
- 양명희, <국어의 생략현상>, 《국어국문학》117집, 1996
- Lakoff, George & Johnson, Mark,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나익주/노양진 옮김, 《삶의 로서의 은유》, 서광사)

### <中文提要>

述賓結構不管是述語還是賓語種類多, 性質各異。其中特別引人注目的一種特殊的賓語是定語賓語。這種賓語本來是一個偏正結構, 中心語不說出, 只留下它的定語當賓語用。這種賓語李臨定(1983)叫做“只保留定語的賓語”。這種說法原本是爲了說明述語和賓語之間不太自然的語義聯系而提出來的, 但也能适用于部分非名詞性賓語。據我們觀察除以往的研究談及的定語賓語之外, 還有更多的定語賓語。

這種結構不說出的中心語原來是句法上的省略, 後來這種省略發展成爲語義上的隱含。其過程是賓語位置上的偏正結構在特定的語境下中心語不出現, 這種情況越多述語和定語之間的組合變得越自然, 逐漸固定下來。這時中心語名詞一般都表示抽象意義, 這種用法可凸顯定語所表示的性質意義。

定語賓語本身是一種有趣的語法現象，它還與漢語的形態特點有密切的連係。漢語顯性形態不多，不管有什麼變化語法系統對它的制約比較少，語言使用者的怎麼想就可以怎麼說，語言使用者的認識就比較自由地反映在語言使用上。

주제어 : 定語賓語, 形態特点, 省略, 隱含